

“그대의 사역을 완수하십시오.”

11/25 월

행 1:16-25 (17, 25)

16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7 유다는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사역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18 (그런데 이 사람이 불의의 대가로 받을 산 후, 거꾸로 떨어져서 배가 터지고 내장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19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일을 알게 되어, 그 받을 그들의 지역어로 아겔다마라고 했는데, 그 말은 ‘피밭’이라는 뜻입니다.)

20 이따라서 시편에는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또 ‘그의 감독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1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나드시던 동안에,

22 곧 요한이 침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어 하늘로 올려지시던 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의 하나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23 그러자 그들이 두 사람을 추천하였는데,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는 별명도 가진 요셉이었으며, 또 한 사람은 맛디아였다.

24 그들이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주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을 밝히 보여 주시어,

25 이 사역과 사도 직분을 대신하게 하십시오. 유다는 이것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갑니다.”

11/26 화

고후 4:1-7

1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2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부끄러운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지 않으며, 진리를 나타내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합니다.

3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이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4 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5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6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7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딤후 4:5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서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파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사역을 완수하십시오.

11/27 수

고후 3:1-9 (6)

1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하기 시작해야겠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도 여러분에게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받을 추천 편지가 필요하겠습니까?

2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편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쓰였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며 읽고 있습니다.

3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하여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 판에 쓴 것입니다.

4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5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같이 여겨, 스스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충분한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6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7 더구나 돌판에 문자로 새겨진 죽음에 속한 사역도 영광 안에서 시작되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 곧 없어져 가는 영광 때문에도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는데, 8 하물며 그 영의 사역은 더욱 영광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9 유죄판결을 내리는 사역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사역에는 영광이 더욱 넘칠 것입니다.

딤편 1:12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나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11/28 목

행 20:18-27 (24)

18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줄곧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지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19 나는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노예로서 주님을 섬겼으며, 또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닥친 시련도 겪었습니다.

20 그리고 나는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대중 앞에서나 이 집 저 집에서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가르쳤으며,

21 또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엄숙히 증언했습니다.

22 보십시오, 이제 나는 영 안에 매이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지만,

23 다만 내가 아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각 도시에서 나에게 엄숙히 일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4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엄숙히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25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가운데 두루 다니며 그 왕국을 선포하였으나, 이제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26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27 왜냐하면 내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의결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행 21:19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낱말이 이야기하니,

11/29 금

고전 1:10 형제님들,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도록 하십시오.

엡 4:7-16 (11-12)

7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8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이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셨다가, 사람들에게 은사들로 주셨습니다.”

9 (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0 내려오셨던 그분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11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12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14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함으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입니다.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11/30 토

엘 4:11-12

11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12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딤후 1:5-12

5 나는 그대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으며, 또한 나는 그대 안에도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6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일깨워 줍니다. 나의 안수를 통하여 그대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7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8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또한 주님을 위하여 갇힌 사람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9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름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10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습니다.

11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전파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워졌습니다.

12 이런 이유로 나는 이런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이신 줄을 알고 있으며, 내가 말한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키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12/01 주일

딤후 4:1-4, 6-8, 18, 22

1 겨울이 되기 전에 올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2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매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써, 가책받게 하고 책망하고 권유하십시오.

3 왜냐하면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에는 사람들이 건강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서, 가려운 귀를 긁어 주는 선생들을 많이 두고,

4 그들의 귀가 진리에서 돌아서서 꾸며 낸 이야기로 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6 나는 이제 부어지고 있으며,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18 주님께서 나를 온갖 악한 일에서 구출하시고, 그분의 하늘에 속한 왕국 안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